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기독교의 명절이나 기념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절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영적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어두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성도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눅24:17). 주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일 주일도 못되어 주님을 배신하였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었다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며 절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신은 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천천히 일을 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믿는 데는 좀 빨라야 합니다. 즉시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 마귀가 와서 의심의 독소를 뿌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두려운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모두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성경을 읽었으나 그것이 주님의 부활에 관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하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님께 간구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라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참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2년 부활절 아침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 성찬식도 갖고
저녁에는 축하 음악예배로 부활 찬양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가 154장)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만에 부활하신 날! 기록한 생명의 주일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 세계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 다시 사심을 찬양하며,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 여의도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며, 각 교회마다 부활절 찬양 및 축하 음악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도 오늘 새벽 5시 부활절 예배를 비롯하여 1부예배부터 4부예배까지 성찬식을 거행하고 특별 헌금을 드리며, 저녁예배는 가브리엘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또 각 교회학교별로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 계란 나누어주기, 콘테스트,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시화전 행사도 갖는다.

"나는 부활이요 새명이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15:14)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자.

고난주간 금식미
오늘 드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키 위해 지난 4월 17일 금식한 금식미와 금식헌금을 오늘 하나님께 바친다.

한편 지난 주 청지기훈련에 참가한 제 7, 8, 9교구 성도들도 17일 아침과 점심 식사비를 금식헌금으로 드린다.

제1기 구역장 대학 22일 개강

구역장은 모두 참석해야

배가운동본부 교육·양육분과는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구역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 안에 구역원의 신앙과 생활을 잘 보살피며 구역원과 함께 구역의 영적 성장과 배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구역장을 대상으로 "구역장대학"을 신설한다.

제1기 구역장대학은 오는 4월 22일(수) 개강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두 시간씩 여섯 주 동안 갈릴리움과 베다니 홀에서 진행된다.

■ 구역장대학 시간표

	제 1 교 시		제 2 교 시	
	오후 12시 30분~1시 30분		오후 1시 30분~2시 30분	
	강 의	강 사	강 의	강 사
4.22	구역장의 역할	신성종 목사	구역장경공부 인도법	김성운 목사
4.29			구역장의 실명 설계	윤용규 목사
5.6			구역장의 신앙상담과 육성	송태근 목사
5.13			구역장의 말씀 생활	이조웅 목사
5.20			구역의 관리와 행정	최인근 목사
5.27			구역의 배가 전도 방안	김해규 목사

청년1부 교사 기도회 및 특강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김원곤 목사)는 지난 4월 13일 교육관 510호에서 김원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교사의 역할과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를 아래 기도회 및 특강을 가졌다.

교회학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열렸던 이 행사에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자기 개발과 학생들의 바른 지도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교역자·장로 교육 및 기도회 실시

4월 27일과 28일 교회에서

배가운동본부는 오는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이요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교역자·장로 교육 및 기도회를 개최한다.

"교회 성장 전략"에 대한 강의

와 기도회를 통하여 교역자와 장로들은 배가운동의 효과적인 추진과 달성을 위하여 자세를 가다듬고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마1:18~25)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 없이 남자가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경우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신 한뼘밖에 없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남자는 있지만 여자 없이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와의 경우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세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모든 사람의 출생이 이에 속합니다. 네번째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나는 경우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요셉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마1:19)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들 앞에 고발하여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 즉 강직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1:20)

“생각할 때”라는 것은 기도하며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삼사일언(三思一言), 즉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데 어떤 희생이나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2. 동정녀 탄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이사야 당시에 주신 언약, 즉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언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부부 관계에 의해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성령에

것은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며,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으로, 이를 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며, “여호수아”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이를 해석하면, “자기 백성을 보다 더 좋은 상태, 즉 평화나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연구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 낸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는 그 이름대로 하천에 버려졌으나 바로의 딸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해내어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는 희생이나 고난을 각오한 순종 필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1:18)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을 의미하는 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나라에서도 부모들간에 정혼을 한 경우라도 남자가 결혼 전에 죽게 되면, 여자가 일생 동안 수절하기도 하였습니

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따라서 정혼을 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었고, 헤어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 수속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이혼하는 것은 진실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하였습니

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만 알았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혼을 해야 할지 요셉은 고민스러웠습니

다. 그 당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고발되면 모세오경에 의해 그 처녀를 돌로 쳐죽였습니다. 아직도 모세오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랍국가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결혼하기 전에 음행한 사실이 발각되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혼증서를 써서 가만히 꿇는 것입니다(마1:19). 이렇게 가만히 꿇게 되면 그 사람은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무슨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과 결재를 받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처럼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사자가 그의 꿈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요셉을 위로하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천사의 그와 같은 지시를 따르는 데에는 상당한 희생이 따르고, 굉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할들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

예언된 이름의 의미대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다. 의하여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 의해 태어나셨다면, 그분 또한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와 이에 대한 신앙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예수라는 이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뿐 아니라 그의 이름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임마누엘”이라는 말에서 “엘”이라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상태, 즉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 저서 안내

신약총론	CLC
신약신학	CLC
요한계시록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로마서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사도행전 강해	도서출판 엠마오
가톨릭의 ABC	도서출판 엠마오
초급 헬라어	총신출판사
신약역사	선행협회
엠마오 성경연구	도서출판 엠마오

충현논단

부활 신앙과 우리의 삶



김성운 목사(제6교구·에바다부 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심판)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도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며, 구원은 커녕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의

시고 승리하셨다. 인간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죄사함을 받는 것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도, 의심이 변하여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그도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의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은 세상

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어린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히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믿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감격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와 더러운 정욕을 부인하고 혈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감사한 조건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 은총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세상 권세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하늘나

예수 부활 소식을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으로 증거해야

담대한 신앙의 장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용기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던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던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

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죄와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다.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배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주의 일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부활하고 승천하신 신령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슬픔이나 두려움 극복할 수 있어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였으며, 특히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인간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죽음은 엄청난 힘으로 인간을 괴롭혀왔고,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그늘에서 해매는 우리들에게 광명을 가져다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

믿음이 되는 것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도, 인간의 탐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5:10)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장로칼럼

고난 그리고 부활



손경수 장로 (편집국장)

그는 고독했다. 외로웠다. 그 누구 하나 쓴 잔을 같이 마실 동료도 없었다. 비참과 애통의 침을 삼키며 섭리에 따른 순종만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 있는 그와 함께 고뇌하고, 위로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기도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

돈에 눈이 먼 가롯 유다의 배신, 체면과 명예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빌라도 재판관, 이기주의에 휩쓸린 제자들,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는 유언과 함께 돌 무덤에 장사되었다. 적막이 무덤결을 가로막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와 연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꾀에 현혹되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자행했다. 그뿐 아니라 제멋대로, 기분나는 대로, 방종의 생활을 계속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 속에 빠져있는 피조물들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았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십자가가 형틀에 못박히는 수모까지 당하는 고통까지 보여주시면 죄악에 눈이 어두운 우리들을 대속해주셨다.

○ ○ ○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원수를 이기셨으며, 어두움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

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해야 한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다시 꼬집어 내지 말자.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인간의 고통과, 절고, 불평 불만, 불신, 비참, 애통, 그리고 고독을 “할렐루야”로 승화시키자.

우리 입에는 여호와의 찬양하는 입술이 닫혀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성도간의 대화도 주 안에서 승리를 격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희생적 자세로 도와주는 열심을 보이자. 남의 허물을 캐내어 흠을 보는 미련한 짓도 버리자. 나만이 제일이라는 의식 구조도 십자가에 함께 파묻어 없애버리자. 그저 겸손한 자세로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하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며 마음을 달래주는 큰 그릇이 되자. 내 생각만이 옳다는 주장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폭 넓은 아량을 갖도록 노력하자. 신앙 생활에 장애 요소가 되는 무질서, 방관, 무관심도 없애버리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피차 복종하며, 자비를 베풀며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고차원적인 인간 관계를 수립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까...

다음호 칼럼은 조선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웹스터 사전은 목적을 "행동의 궁극적인 도달 방향,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옛 격언에도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맞춘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총알처럼 달려가는 일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며 "나의 삶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만일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기전까지 여러분은 분명한 방향도, 목적도, 목표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표가 구체적일 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요17:4) 주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다. 그리고 그 사역을 평가하시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대로 셋째마네

☐ 당신도 지금 배가할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조동원 목사
(배가운동본부 홍보분과)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고 했다. 바로 그 앞절에서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6절)라고 고백했다.

여러분도 떠날 기약이 가까이가오면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보고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는 영적 배가를 하라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가 영적 배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일 뿐 아니라 그의 명령이다.

배가운동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의 사랑을 느끼며, 어떻게 나를 사랑

하셨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1800년대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김볼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이요, 헌신적인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어느날 그는 농촌에서 갓 올라와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강권했다. 그때에 이 소년은 선생님의 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바로 이 소년이 북미주와 유럽에서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화 드림이트 무디이다.

에드워드 김볼은 그의 일기에서 이 소년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주일학교 우리 반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은 그보다 마음이 영적으로 더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없을 듯했고, 분명히 마음을 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소년보다 더 힘들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대중 전도 사역에 사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김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전도명령을 수행한 성도였다. 이 전도 배가운동은 무디에게, 그리고 무디와 함께 사역한 메이어 목사에게, 그리고 메이어 목사에게 말씀을 배운 전세계에 복음전파자인 채프먼에게 계속되었다. 채프먼의 전도집회에서 함께 사역했고 후에 미국 전체를 성령으로 뜨겁게 한 빌리 켄디에게 이루어졌다. 또한 그 집회에 참여하여 예수를 영접한 10대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다.

에드워드 김볼 한 사람의 헌신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한 생명을 부르시고 있는 줄 믿는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이며, 교회가 오늘 해야 하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충현의 성도들이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녀가 되자.

수도노회 남녀전 협의회 임원에 충현 교인 선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도노회(노회장 이만수 목사) 남녀전도회 연합회 임원으로 피선되었다.

☐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고문:강은원 장로
부회장:최상규 장로
지육부차장:이하영 집사

재정부부장:김춘권 집사
협동총부:서동석 장로,
강 협 장로, 박상준 집사,
김여순 집사, 안석령 집사
☐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부회장:김상순 권사
회 계:김춘지 권사
음악부장:금호순 집사

부 활

김운섭 집사(장년2부)

겨울은 무덤
봄은 부활
쟁그렁
깨어지는 하늘
부서내리는
양춘 햇살
이승의 님은
저승 가고
용부림 치는
대지 위에
홀로 남은
쓸쓸한 십자가.

사망의이천년
기다림은
그의 음정으로
광명이 오듯
찢어진 틈
어둠 현고
깊고 낮은 땅
잠 켜 빛
구원의 바람
차디찬데
저승 간 님
외롭지 않을까.

감사의 예물

지난 4월 12일자 본 지에 게재된 "피아노 기증 요청" 기사를 읽고 제9교구 조성재 성도, 김한원 권찰, 제14교구 유순녀 권사가 피아노를 기증해 왔다. 이 피아노들은 교회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충현프리즘

☉...지난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갈릴리홀에서는 새로 등록된 선입교인들에 대한 환영회 행사가 있었다.

2개월에 한번씩 배플여지는 이 행사는 선입교우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소개를 비롯하여 교구장, 지도 교역자, 지역장 소개 등이 있고, 간단하나마 간증의 시간도 갖는다.

약 3분씩의 간증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간을 주어 예수 믿게 된 동기, 충현교회에 등록한 이유, 앞으로 단편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어느 여성도는 충현교회에 등록한 것을 무척 기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부탁을 당부했다.

어느 남성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친구의 권유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

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갖게 되었다면서 무척 기뻐했다.

비록 짧은 간증시간이지만,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 시간이었다.

☉...우리 교회 본당 1층 갈릴리홀 뒷편 로비엔 항상 사진 전시회가 개최된다. 그때 그때 행하여졌던 교회 행사들의 면면들이 시각적으로 잘 크로즈업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행사에 대한 재조명과 기도할 수 있는

92년도 요람 발간

92년도 교회요람이 오늘 발간되어, 성도들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바로 잡음

지난 4월 5일자 본 지에 게재된 "북한 선교 통일 훈련원 지원"에 관한 기사는 충현교회가 기도로써 지원한다는 것이며, 운영을 일임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마음 자세를 갖게 하고 있다.

지난주 게시된 사진엔 저글링한창 진행되고 있는 청지기훈련 모습 이 담겨져 있어 "나도 꼭 청지기 훈련에 참석 하겠다."는 충동감을 느끼게 했고, 또 한편 벽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열의를 갖고 휴전선 근방의 교회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실랑민 교우들의 표정에서 어서 속히 남북통일의 그날을 기대하고픈 절박함이 있었다.